

일본해가 밀어낸 동해 명칭

이상태

국제문화대학원대학 석좌교수

1. 2,000년 전부터 사용해 온 동해 명칭

우리 주변의 산, 강, 바다 등에는 아무런 명칭도 없었으나 그 자연물과 더불어 생활해 온 사람들이 문화를 발전시키면서 그들의 문화의식에 적합한 명칭을 자연물에 붙이게 된다. 그러므로 산, 강, 바다의 명칭은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가치관의 표현이며 역사와 문화의 산물이다.

한국에서 동해(東海)의 명칭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2,000년전의 『삼국사기(三國史記)』 고구려 동명왕 기사에서 비롯된다. 그 내용은 고구려가 북부여국의 자리에 건국될 것이니 북부여는 이곳을 피하여 동해가의 가섭원으로 나라를 옮기라는 것이다. 이때가 중국 한(漢)나라의 신작(神爵) 3년이므로 서기로는 B.C. 59년이다. 신라가 B.C. 57년에 건국하였으므로, 동해라는 명칭은 삼국이 건국되기 이전인 B.C. 59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우리 민족이 2,000여년간 사용해 온 유구한 명칭이다.

동해가 얼마나 오래 적부터 우리 민족이 사용해 온 바다 명칭인가를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예를 들면 고구려의 장수왕이 부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AD 414년에 세운 광개토태왕비가 있는데 그 비문에도 “동해”의 명칭이 나온다. 동해라는 명칭은 5세기부터 금석문(金石文)에도 등장한다.

이에 비하여 “일본해(日本海)”라는 명칭은 1602년에 마테오려티치가 만든 “곤여만국전도”에 처음 등장한다. 우리가 동해라는 명칭을 사용해 온 지 1,650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일본해”라는 명칭이 등장하는 것이다.

2. 일본해가 밀어낸 동해 명칭

일본과 한국은 매우 가까운 이웃이었다. 두 나라 사이의 과거 역사는 친선관계를 유지했던 시기가 많았지만, 근대에 접어들어 일본에 제국주의(帝國主義)가 발달하면서 두 나라는 불행한 역사를 나누어 갖게 된다.

특히 19세기에 일본은 명치유신으로 중앙집권 국가를 형성한 후 산업국가로 전환하면서 대륙으로의 진출을 적극 시도한다. 그들은 대륙 진출을 다른 나라에 대한 영토 침략으로 생각하지 않고 영토 확장이라고 불렀으며, 다른 나라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는 가는 생각하지 않았다.

대륙으로 진출하려면 이웃 나라에 대한 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그들은 이를 위하여 많은 한국지도를 제작하였다. 일본 국회도서관의 지도실에는 한국 관계 지도(地圖)가 약 4,000 종 소장되어 있다. 이들 지도는 대개가 19세기 이후에 제작되었다.

여기에 소장된 고지도들의 바다 명칭 표기를 살펴보면 19세기 후반에는 일본에서 제작된 한국의 고지도에 동해를 당연히 표기하고 일본해는 일본의 본토 부근에 바짝 부쳐 표시하거나 태평양 쪽 바다에 표시하고 있다. 조선여지전도(朝鮮輿地全圖)(지도1)와 조선전도(朝鮮全圖)(지도2) 등이 이를 잘 말해 주고 있다. 한편 한국의 동해는 개정신전조선전도(改訂新鑄朝鮮全圖)(지도3)에서는 고려해(高麗海)로 표기하거나, 대일본조선지나삼국도(大日本朝鮮支那三國圖)(지도4)에서처럼 조선해(朝鮮海)라고 적고 있다. 특히 1882년에 만든 대일본조선지나삼국도에서는 일본 둘레의 바다를 일본동해, 일본남해, 일본서해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였다. 지금 일본해라고 주장하는 바다를 우리나라 쪽은 조선해(朝鮮海)라고 표기하고, 일본 쪽은 일본서해(日本西海)로 구분하여 그렸다.

그러나 1894년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하여 대륙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한 다음부터는 그들의 영토 확장 정책에 따라 일본해가 그들의 본토 연안에서 동해로 진출하여 동해 자리를 차지하고 그 대신 동해는 동지나해(東支那海) 쪽으로 밀어내어 표기하기 시작하였다.

이 때부터 동해는 일본해에 의하여 밀려나기 시작한 것이다. 1894년에 제작한 일한실측정도(日韓實測精圖)에서 일본해는 동해를 동지나해로 밀어내고 그들이 독차지하기 시작하였다. 1903년에 만든 일청노한국동지도(日淸露韓極東地圖)(지도5)와 1904년에 제작한 시사신보만한지도(時事申報滿韓地圖)에서도 동해는 동지나해에 표기되어 있다. 그러나 동지나해는 동지나해가 확실하므로 이를 동해로 표기한다는 것은 일종의 무리였다. 여기서 생각한 방식이 동해를 동해 해역도 아니고 동지나해 쪽도 아닌 영동해로도 제주도 남쪽 등지에 표기한 지도도 등장한다.

이들 지도는 1907년 일본 수로국에서 만든 정밀한 일본중부급조선(日本中部及朝鮮)(지도6)나 1944년 일본 수로국에서 만든 조선(朝鮮)(秘5193)이라는 해도(海圖) 등이다. 두 지도는 일본 수로국에서 만든 공식지도인 셈인데 이들 지도에서는 동해를 일본해가 차지하고 동해는 그 대신 제주도 남쪽으로 밀려나 있다.

그 외에 많은 지도들은 일본 연안에 표시하던 일본해를 동해 자리에 차지하고 동해는 아예 표시조차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동해는 일본해에 의하여 밀려났음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주장이 아니라 일본이 제작한 일본국회도서관에 소장된 한국의 고지도에 명백히 표시되어 있는 것이다.

1910년 한국의 주권이 일제에 의하여 강탈당한 이후에는 동해는 더구나 그 설 땅을 상실하고 조그마한 항의조차 못하고 일제(日帝)에 의하여 일본해로 굳어지게 된 것이다. 더욱이 1929년의 제1회 “국제수로기구”에 우리 측 대표가 참석하지도 못하고 일본 대표만 참석하였기 때문에 동해라는 명칭은 거론되지도 못하고 일본해로

명명된 것이다

일본이 대륙 진출을 피하면서 일본해에 의하여 빼앗긴 동해 명칭을 하루 바삐 바로 잡아야 한다.

3. 일본에서 제작한 공식지도에 표기된 동해 명칭

일본도 도쿠가와 막부 시절에는 쇄국정책을 써서 외국과의 교류를 차단하였다. 그렇지만 일본은 나카사키를 통하여 네델란드와 계속적으로 제한적인 무역을 허용하였기 때문에 지도학도 일찍부터 네델란드의 지도학을 수용하여 상당한 수준으로 발달하였다.

19세기에 들어서면 일본 주변에도 이양선 등이 자주 출몰하여 서양에 대한 경계심이 한층 높아졌고, 서양에 대한 정보가 절실히 필요하여졌기 때문에 국가적 후원하에 세계지도 등을 제작하였다.(표1 참조)

1809년에는 막부의 천문방(天文方)이었던 타카하시 카게야수가 막부의 명을 받아 “일본 변경약도”를 제작하였다. 그는 만국지도를 제작하라는 명을 받고 먼저 우선적으로 제작한 지도가 이 지도인데 이 지도에서는 일본 주변 국가의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국방 강화에 이용하기 위하여 이 지도를 제작하였다. 이 지도에는 일본해를 태평양 쪽에 표시하고 동해를 “조선해”라고 크게 써 놓았다. 타카하시는 막부의 천문방으로 기후 조사와 지도 제작 등을 맡은 일본의 공식 관리이고 그가 제작한 이 지도는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그는 이 지도에서 동해를 일본해가 아니라 “조선해”라고 표기하였다.

그는 그 이듬해인 1810년에 제작한 “신정만국전도”에서도 동해를 “조선해”라고 표기하였다. 이는 일본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동해가 일본해가 아님을 밝힌 것이다.

1835년에는 타카하시의 후계자인 야쓰다(安田雷州)가 막부의 명에 의하여 “본방서북변계약도”(本邦西北邊境略圖)를 제작하였다. 그도 이 지도에서 동해를 “조선해”표기하여 동해가 일본해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위에서 설명한 지도들은 도쿠가와 막부의 천문방으로 재직하던 관리들이 제작한 일본의 공식지도인데 이들 지도에서도 분명히 동해가 일본해가 아닌 조선해라고 표기하였다. 이는 도쿠가와 정부에서도 동해가 일본해가 아님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일본에서 제작한 지도 중에 조선해로 표기한 지도 목록(표1)

순번	지도명	제작연대	제작자	비고
1	北槎聞略 附 亞細亞全圖	1794	桂川甫周(Kasragawa)	朝鮮海
2	日本邊界略圖	1809	高橋景保(Takahashi Kageyasu)	朝鮮海
3	新訂萬國全圖	1810	高橋景保(Takahashi Kageyasu)	朝鮮海
4	嘉永校訂東西地球萬國全圖	1835	栗原信晁	朝鮮海
5	新製輿地全圖	1844	箕作省吾(Mizukuri)	朝鮮海

6	本邦西北邊境略圖	1850	安田雷州	朝鮮海
7	地球萬國方圖	1853	翠堂彭	朝鮮海
8	重訂萬國全圖	1855	山路譜孝	朝鮮海
9	環海航路新圖	1862	廣瀨保庵	朝鮮海
10	大日本總境略圖	1865	玄玄堂	朝鮮海
11	地球萬國方圖	1871	渴津香桂	朝鮮海
12	萬國地球分圖	1870	橋本玉蘭齋 (Hashimoto Kyokuransai)	朝鮮海
13	大日本朝鮮八道支那三國全圖	1882	武田勝次郎	朝鮮海, 大日本 西海
14	新撰萬國輿地精圖	1888		朝鮮海 日本海
15	新撰萬國全圖	1894		朝鮮海 日本海
16	新訂萬國全圖	1934	高橋景保 再刊行	朝鮮海
17	朝鮮全岸	1906	日本水路局	東海
18	日本海及黃海	1936	日本水路局	東海
19	朝鮮	1944	日本水路局	東海
20	朝鮮細密大地圖	1949	在日本朝鮮科學技術協會編	東海
21	嘉永校訂東西地球萬國全圖	1990	岩田文庫	朝鮮海

4. 맺음말

우리 주변의 산, 강, 바다 등에는 아무런 명칭도 없었으나 그 자연물과 더불어 생활해 온 사람들이 문화를 발전시키면서 그들의 문화의식에 적합한 명칭을 자연물에 붙이게 된다. 그러므로 산, 강, 바다의 명칭은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가치관의 표현이며 역사와 문화의 산물이다.

동해라는 바다 명칭은 우리 민족이 고구려의 건국 기사나 광개토대왕릉비 등에서도 사용한 2,000년 전부터 사용해 온 바다의 명칭이며 이에 비하여 일본해라는 바다 명칭은 1602년의 마테오릿치의 “곤여만국전도“에 처음 등장하는 바다 명칭이다. 우리가 동해라는 바다 명칭을 오래 동안 사용한 지 1,650년 이후에나 비로소 등장한 바다의 명칭이다.

동해라는 바다의 명칭은 19세기 중반까지도 일본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다의 명칭으로 그들이 제작한 공식 고지도에도 일본해가 아닌 “조선해”라고 밝혔다.

일본이 제국주의 정책을 추진하여 우리나라를 침범하여 식민지 국가로 만든 후에 바다의 명칭도 그들이 편리한대로 바꾸었다. 특히 1929년의 국제수로기구에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표는 참석도 못하였다. 동해라는 바다의 명칭은 거론조차 못하고 일본 측의 일방적 주장으로 일본해로 결정되어 부당하게 지금까지 사용되어 온 잘못된 바다의 명칭이므로 빠른 시일 안에 고쳐져야 한다.